

일본 오사카 도서관을 다녀와서

글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9기·10기*



2006년 1월 18일, 근 3개월의 여행 준비를 마치고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9기, 10기 일동은 일본 오사카 도서관 견학 길에 오르게 되었다.

2005년 2학기 수업 중에 다른 나라 도서관을 기회가 있으면 탐방해 보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가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어느덧 오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공을 날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견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최석득 교수님의 철저한 준비로 우리는 4박 5일간의 도서관 견학을 할 수 있었고, 단순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만족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크기에 일본 도서관 견학을 짧게나마 정리함으로써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견학하였지만, 이번 글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소개하려고 한다.

안내역을 맡은 다쿠보(田窪)교수님(近畿大學)과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빈틈없는 일정의 오사카시립이쿠노도서관(大阪市立生野圖書館),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大阪市立中央圖書館), 미노오시립서남도서관(箕面市立西南圖書館) 그리고

미노오시립남소학교도서관(箕面市立南小學校圖書館) 탐방이 시작되었다.

공공도서관

- 오사카시립이쿠노도서관(大阪市立生野圖書館)



〈도서 기증〉

1월 19일 목요일 아침, 이른 일정을 쫓아서 서둘러 아침식사를 한 우리 일행은, 우리보다 더 서둘러 숙소까지 오신 인상 좋으신 기류(桐生)관장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 기류관장님은 예전에 이쿠노도서관 사서로 재직할 당시,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 재일한국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우리말을 공부하며 일본에서 처음으로 한국어자료코너를 만

* sorry25@hanmail.net(대표로 이상에 윤일중학교 도서관 사서의 이메일을 수록함.)

드신 남다른 분이다. 현재는 다른 도서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지만 한국과의 인연으로 우리까지 그분의 특별한 안내를 받게 된 것이다. 이쿠노도서관은 오사카시립 24개 분관 중 가장 작으며 여러 기능을 하는 건물의 2층에 있는 도서관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핵심적인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첫째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지역정보지(유인물)를 일목요연한 형태로 도서관 입구에 비치해 둬으로써 지역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점과 어린이실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오전 9시 개관과 동시에 열람업무를 진행하는 우리와는 달리, 이곳은 오전 9시에 출근하지만 이용자업무는 10시부터 시작된다. 이는 중앙도서관에 신청한 예약도서가 도착하는 시간과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진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본인 특유의 정신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한편, 문학의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을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서가 중간에 큰 글씨로 안내함으로써 쉽게 저자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같은 사람의 저작이 한 데 배열되고 순서는 저자의 자모순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서가에서 저자명을 돋보이게 한 것은 특이하게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쿠노도서관에서는 〈한국·조선도서〉 코너를 마련해 이쿠노구의 1/4에 해당하는 4만 명의 한국인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한국어 자료 구입에 힘쓰고 있는데, 그 예산은 연간 전체 도서관구입비 500만 엔 중 30만 엔 정도라 한다. 한국어 자료는 주로 한글을 아는 자원봉사자가 정리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료를 기증할 때 KORMARC형식의 데이터를 동봉하면 오사

카시립중앙도서관에서 바로 JAPANMARC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미리 〈한국·조선도서〉코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한국어 자료 30여 권을 준비하였으며 자료기증의 뿌듯함을 누릴 수 있었다.

•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大阪市立中央圖書館)



〈오사카시립도서관〉

일본의 뒷골목을 보여주고 싶다는 다쿠보 교수님에게 끌려, 정갈하고 멋스럽게 가꾸어진 작은 집들, 거리 곳곳에 넘쳐나는 자전거들의 행렬,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 서낭당 같은 낯설지 않은 신사들을 지나 중앙도서관에 도착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점은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에게도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하철역과 중앙도서관을 수평으로 연결한 것이었다. 벽면을 짝 매운 서가들과 그곳에 충실히 가득 찬 이용자들의 모습, 그리고 10년 전에 건립되었으나 규모와 대출 면에서 일본 1위를 자치하고 있다는 그 위용이 느껴졌다. 현재 오사카시의 인구는 260만 명으로 연간이용자 185만 명, 1일 평균이용자수 6800명, 연간 대출 책 수 284만 책, 직원 수 140명이라는 설명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이 도서관은 양이 아닌 질을 높이려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일본의 독서량

저하에 따른 독서진흥 방안으로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적극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학력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은 1947년~1950년 출생자들의 퇴직을 대비한 도서관 이용 수요와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일> 정보교류를 희망하고 있었다.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은 특히 장애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시각장애자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對面讀書室(대면독서실)'이란 세 개의 작은 방을 준비해 두고 있었으며, 그림책을 형질 등으로 특별히 제작해 시각장애자가 동물이나 책에 나오는 소품들을 직접 만지며 점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장애자를 위한 섬세한 배려로 다가왔다. 또한 지하 3~6층이 지하서고였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였으며, 서고 내에 있는 귀중도서보관실은 이산화탄소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기획정보과 주임 선생님의 정보네트워크 시스템 설명과 사서주임 선생님의 일반적인 설명, 그리고 부관장님의 친절한 안내를 다시금 떠올리니 마치 우리 일행이 지금도 감동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한다.

• 미노오시립서남도서관(箕面市立西南圖書館)

1월 20일 오전에 긴키대학도서관(近畿大學圖書館)과 미노오시립남소학교도서관(箕面市立南小學校圖書館)을 견학한 우리 일행은 늦은 오후에 복합건물예의 2층에 위치한 미노오시립서남도서관에 도착하였다. 도서관입구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북카페 <모모>에서는 향긋한 커피

향이 물씬 풍기었다. 미노오시립서남도서관에서는 태양열 시스템이 전체 필요 전력의 4%를 공급하고 있었다. 기차모양의 서가로 꾸며져 있는 어린이실이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음악 감상 서비스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을 것 같은 음향시설에 자꾸 시선이 갔다. 모든 서가의 선반을 높히고 세울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서가 중간중간에 권장도서의 겉표지를 볼 수 있도록 배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市·町·村(시·정·촌)의 재정이 빈곤하여 고이즈미총리의 정책으로 민간위탁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도서관은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도서관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젊은 주부가 많은 지역주민에게 육아에 대한 정보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육아 관련 강좌를 많이 하고 있으며, 육아 관련 책 전시 및 책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이 먼 마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배본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교육센터 및 학교도서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미노오시교육위원회 공공도서관 정책부서에서는 겸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 미노오시립남소학교도서관(箕面市立南小學校圖書館)

일본 도서관 견학에 부푼 기대를 안고 이곳저곳을 탐방한 지 3일째, 20일 오전, 오사카의 북부지역의 미노오시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우리 일본견학팀의 근무지가 학교도서관이 많기에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학교를 들어서서는 순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미소와 서툰지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때문인가 2시간에 걸친 지하철의 피로감이 싹 달아나 버렸다. 작은 소회의실에서 만난 교장선생님은 학교와 도서관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셨으며, 한국의 서울, 부산 등지를 방문하셨다는 얘기와 역시 한류의 영향인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애교 섞인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우선 학교를 간단히 소개하면, 1952년 8월에 설립되어 같은 해 세워진 아담한 3층 건물에 19학급 497명이 재학중이고, 일본에서도 도서관이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 중 하나라고 자랑이 대단했다. 이 학교에는 겸임 사서교사 1명과 학교사서 1명이 있었는데 미노오 시 제1호로 사서가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의 학교이기에 충분했다.

교장 선생님의 간단한 학교 소개를 끝내고 우리는 따뜻한 햇살이 있는 2층에 위치한 도서관을 볼 수 있었다. 서가는 도서관 사각 벽면에 놓여져 있었고 도서관은 2칸 반 정도의 넓고 환한 공간으로 아치문으로 연결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 칸은 학생들의 조사학습을 위한 인문 및 역사, 참고도서, 그 외 주제의 자료들을 모아두었고 다른 한 칸은 저학년용을 위한 그림책코너와 문학류 도서가 있었으며, 3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초등학생용 열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대출대 바로 뒤로 보이는 정리실과 도서관 입구 바로 왼편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세면대만 보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학교도서관의 보여주기식 리모델링 사업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마침 우리가 참관한 시간은 도서관 활용 수



〈스토리텔링 시간〉

업시간으로 도서관에서 갖는 1학년 대상의 스토리텔링 시간이었다. 담임선생님의 지도 아래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학생들과 스토리텔링 수업을 맞이하는 사서의 안정된 자세만 보더라도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많은 친숙함으로 다가왔으리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에서의 수업시간은 주당 10~15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담임선생님과 사서가 함께 계획하고 있었으며, 연간 수업계획과 활동에 대해서 사서가 모두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서와의 협동 수업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년마다 도서관에서 하는 수업 테마가 정해져 있었으며 3학년생이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별도의 시간이 있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내용도 전해 들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아침시간에 갖는 전교생의 아침독서시간과 도서위원 학생들의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읽어주기 시간은 주목받을 만한 프로그램이었다.

대출권수는 1주일동안 2권으로 대출증을 따로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전교생이 많지 않아 사서가 학생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서 대출증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학년별 대출증 바코드를 A4 한 장에 정리하여, 대출시 사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대출증 분실에 대한 염려도 그 이유 중의 하나였다.

한 코너에는 책상을 한 개 놓고 책을 전시해 놓았는데 매달 주제를 정해서 관련 도서를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도서관의 장서 수는 1만여 권이며 일본의 학교도서관의 평균 장서수와 비교하면 미노오시 학교도서관은 평균이상이라고 했으며, 월간 20권 정도의 신간도서를 입수한다고 하니, 학교 예산 중의 도서관 예산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에 인근 시립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대차를 통해서 3개월 1학기 동안 3학년 평균 50권 정도의 장서를 장기간 대출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학교도서관간의 네트워크이었다. 2002년부터 미노오시의 학교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시스템이 모두 동일하여 타 학교도서관의 도서검색 뿐만 아니라 대출반납도 가능하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시청에 도서관 책 운반팀이 있어 메일로 의뢰된 책을 매일 셔틀버스로 각 학교를 돌며 책과 공문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 교사와 학생들의 장서 부족으로 겪는 불편함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는데, 이용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캐릭터와 큼지막한 그림과 글자들로 쉬운 검색과 동시에 빠른 도서 위치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좋아한다는 사서의 말이 빼곡히 글자판으로만 이루어진 우리의 프로그램과는 비교되는 점이었다.

다만, 남소학교에서 도서관이용 방안으로 내세운 조사학습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쇄매체 외에 비도서나 멀티미디어 등의 다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에 접목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또 이용자용 정보검색대가 없어 사서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이 컴퓨터를 검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업이 끝난 후 겸임사서교사가 나와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은 도서관 정보수집과 문제발생시 교사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교사와 학교사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역할과 외부에 공식적으로 도서관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미노오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주사의 설명으로 시의 정책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인구 12만에 초등학교 13개와 중학교 7개가 있는 이 곳은 1989년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모임·近畿(긴키), (회장 北村)”가 생기면서 학교도서관에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우고 1992년 처음으로 비상근직 학교사서를 두기 시작하여 1998년 20개의 학교에 19명의 사서를 배치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이 정도로 사서가 많이 채용된 시는 미노오시 뿐이고 그 정도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미노오시립남서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모임·近畿(긴키)”와 교류회를 가졌다.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립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모임·近畿(긴키)”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이 모임은 近畿(긴키)권을 중심으로 시민, 사서, 교사, 교수, 연구자와 같은 여러 사람(400명)이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소중히 하면서 학교도서관 및 교육에 관한 학습과 정



〈오사카성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보교류를 각각의 지역입장에서 실천하고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시에 건의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월 1회의 학교사서 연락회를 조직하고, 시립도서관 사서와 제휴하여 2개월에 1번씩 학습회를 조직하고, 사서교사와 학교사서의 연구회는 만들어 월 1회의 연구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자주연수라고 하여 월 1회 연수가 있는 등 매우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놀랄만한 것은 도서관 네트워크시스템인데 6개의 시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자료의 검색, 책의 예약, 참

고봉사가 가능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책을 공공도서관에서 1개월 내지 1년간 빌릴 수 있는 것이었다.

교류회는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모임·近畿(긴키)”,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교육위원회 관계자들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다양한 설명 후에도 저녁 도시락을 먹어가며 늦게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들이 준비한 가미시바이(紙芝居) 공연으로 끝났다. 이것은 그림종이를 한 장씩 넘기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구연과 연극이 혼합된 형식이다. 일본인이 책을 사랑하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이유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들과 그들의 생각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들은 한 달 동안 발표준비를 했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외국의 기관을 방문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헌신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최교수님의 말씀처럼 기관마다 너무들 친절하고 반갑게 맞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우리를 찾는 사람을 열심히 맞으리라. (☺)